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한국축구대표팀이 필리핀과의 첫 경기를 이틀 앞둔 5일 오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폴리스 오피서스 클럽 훈련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 아시안컵 왕좌 탈환 첫 걸음

필리핀과 조별리그 C조 1차전...59년 만 우승 사냥
'AG 득점왕' 황희찬, 아시안컵 득점왕에도 도전장

'손흥민 초반 공백? 황희찬의 발끝을 믿어라'
59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왕좌 탈환을 향한 태극전사들의 뜨거운 도전이 마침내 막을 올린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7일 오후 10시 30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필리핀과 2019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을 펼친다.
한국은 역대 아시안컵에서 1956년 1회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 연속 우승 이후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직전 2015년 호주 대회에서는 결승까지 올랐지만 연장 승부 끝에 호주에 밀려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4년 전 우승의 아쉬움을 가슴에 간직한 태극전사들은 59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그동안 구슬땀을 흘렸고,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3위인 한국

의 조별리그 1차전 상대는 필리핀(116위)이다.
한국은 필리핀과 1956년부터 1980년까지 7차례 대결해 '무실점 7연승'을 거뒀다. 7연승 동안 무려 36골을 넣었을 정도로 일방적인 승리였다.
하지만 방식은 금물이다.
한국은 필리핀과 무려 29년 만에 재대결할 뿐만 아니라 경기 결과도 대회 초반 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벤투 감독은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미팅을 통해 필리핀의 장단점을 세밀하게 파헤쳤다.
필리핀은 비록 FIFA 랭킹이 낮지만 '명장' 스펀 에란 에릭손 감독을 영입했고, 유럽리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려 동남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각오다.
필리핀은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활약한 독일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출신 미드필

더 슈테판 슈뢰크(32)가 팀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어 태극전사가 신경 써야 할 선수다.
한국은 '핵심 공격수' 손흥민(토트넘)이 소속팀 일정으로 조별리그 1, 2차전에 나설 수 없는 게 아쉽지만 조별리그 팀들을 압도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수도적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득점왕(9골) 황희찬(갑파 오사카가)이 대표적이다.
황희찬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득점왕의 기운을 아시안컵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벤투 감독은 필리핀을 상대로 주 전술인 4-2-3-1 전술을 가동할 전망이다.
원톱 스트라이커는 황희찬이 맡고 세 번째 아시안컵을 맞는 구자철(아우쿠스부르크)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설 태세다.
중앙 미드필더는 정우영(알사드)-기성용(뉴캐슬) 듀오가 나서는 가운데 중앙 수비는김영권(광주)-김민재(전북) 조합이 맡고, 좌우 풀백은 김진수와 이용(이상 전북)이 출격할 전망이다. 골키퍼는 김승규(빗셀 고베)가 예상된다.
벤투 감독의 마지막 고민은 측면 공격 지원이다.
손흥민이 빠진 왼쪽 날개 자리를 놓고



그동안 황희찬(함부르크), 이재성(홀슈타인 킬), 이정용(보훤)을 놓고 저울질했다.
지난 1일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변형 스리백'을 앞세워 황희찬에게 먼저 선발 기회를 줬고, 이재성이 교체로 벤투 감독의 검증 받았다. 이정용 역시 좌우 측면에서 고루 훈련하며 검증 받았다.
필리핀전에서는 황희찬과 이재성이 좌우 날개로 먼저 출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정용 역시 언제든지 호출될 수 있다. /연합뉴스

아시안컵 개최국 UAE, 개막전 바레인과 1-1 무승부

핸드볼 반칙 논란도

2019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바레인과 개막전에서 페널티킥 동점 골에 힘입어 어렵게 승점 1을 따냈다.
UAE는 6일(한국시간) 아부다비의 자예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개막전인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바레인과 1-1로 비겼다.
UAE와 바레인은 나란히 승점 1을 얻

으며 대회를 시작했다. A조에는 두 팀 외에 태국과 인도도 경쟁을 펼친다.
첫 경기에서 2015년 아시안컵 득점왕 알리 말푸트를 선봉에 세운 UAE는 흐름을 주도했으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는 못하면서 평행선을 이어갔다.
대회 첫 골은 오히려 바레인에서 나왔다.
후반 33분 오른쪽 측면 사데드 레다이스의 크로스에 이은 최전방 공격수 모하메드 알 로하يمي의 헤딩 슈팅이 골라인 앞

에서 UAE 수비수에 막혔고, 이를 알 로하يمي가 재차 오른발로 때려 골문을 열었다.
홈 팬 앞에서 첫 경기부터 패배를 떠안을 위기를 맞은 UAE는 공세를 이어갔고, 후반 43분 페널티킥 동점 골이 나오면서 체면을 지킬 수 있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내려오는 공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바레인의 모하메드 마르손손에 맞았으며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UAE의 아메드 칼릴은 오

봅슬레이 2인승 원윤종-김진수, 월드컵 3차 9위
4인승 대표팀은 유럽컵 4위 '시즌 최고 성적'

한국 남자 2인승 봅슬레이 대표팀의 원윤종(강원도청)-김진수(가톨릭관동대)가 2018-2019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3차 대회에서 9위를 차지했다.
파일럿 원윤종과 브레이크맨 김진수는 6일(한국시간)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린 월드컵 3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53초 36을 기록하며 9위에 올랐다.
1차 시기에서 5초33으로 스타트를 끊은 한국은 경기 도중 한때 5위까지 올라서며 선전했지만 56초78로 9위를 기록했다.
대표팀은 2차 시기에 4초32로 스타트

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5일 독일 빈터베르크에서 펼쳐진 IBSF 유럽컵 4차 대회에 나선 한국 남자 4인승 봅슬레이 대표팀은 4위를 차지했다.
파일럿 석영진(국군체육부대)을 필두로 김근보(강원도청), 배우진, 이종혁(이하 강원BS경기연맹)이 호흡을 맞춘 4인승 대표팀은 1, 2차 시기 합계 1분 53초 94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최고 성적과 함께 처음으로 시상대에 올랐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핸드볼 세계남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첫 훈련을 하기 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출전 '스포츠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든다'

'스포츠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든다 (More than sport, history in the making)'
국제핸드볼연맹(IHF)이 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 단일팀 선수단을 소개하며 붙인 기사 제목이다.
남자 핸드볼 남북 단일팀은 10일부터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 개최하는 제 26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남북이 단일팀을 이뤄 핸드볼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HF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대회 24개 참가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날은 남북 단일팀에 '스포츠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핸드볼에 대해서는 "1974년부터 IHF 회원국이 됐으며 2017년 태국에서 열린 트로피 컨티넨탈 대회에서 3위,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IHF 트로피 주니어 대회 3위 등의 성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공식 홈페이지도 단일팀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번 단일팀 구성은 IHF가 제안했으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도움으로 남북 올림픽위원회가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다"고 단일팀 성사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베를린에서 남북 합동 훈련을 지휘하는 조영신 감독은 4일 열린 공개 훈련 행사 인터뷰를 통해 "함께 훈련하는 기간이 짧지만, 단일팀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보여줄 것"이라며 "매 경기 남북 선수와 북측 선수가 같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단일팀은 조영신(상무) 감독이 사령탑을 맡았고 강일구(대한핸드볼협회), 백원철(하남시청), 신명철(북측) 코치가 코칭스태프를 구성했다. 선수단은 남북 선수 16명에 북측 선수 4명이 합류했다.
IHF는 이 기사를 통해 "최근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번 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출전, 대회 개막전을 독일과 치르게 됐다"며 "개막전이 열리는 장소인 베를린은 통일의 과정이 생소하지 않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공식 홈페이지도 단일팀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번 단일팀 구성은 IHF가 제안했으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도움으로 남북 올림픽위원회가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다"고 단일팀 성사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베를린에서 남북 합동 훈련을 지휘하는 조영신 감독은 4일 열린 공개 훈련 행사 인터뷰를 통해 "함께 훈련하는 기간이 짧지만, 단일팀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보여줄 것"이라며 "매 경기 남북 선수와 북측 선수가 같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FC, J2리거 DF 임진우 영입

영남대 황금멤버...J2리그 '로아소 쿠마모토'서 활약

프로축구 광주FC가 중앙수비수 임진우(25·사진)를 영입했다.
광주는 6일 일본 J2리그 로아소 쿠마모토에서 활약한 임진우를 신인자유선발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187cm·80kg의 탄탄한 신체조건을 가진 임진우는 강력한 피지컬로 공중볼 장악과 안정적인 볼처리가 강점인 중앙수비수다. 큰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민첩성이 뛰어나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데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전국 대학리그를 제패한 영남대의 황금멤버인 임진우는 2016년 한해에만 제 47회 추계대학연맹전, 10권역 리그, 제 97회 전국체전에서 우승컵을 휩쓸며 큰 주목을 받았다.
임진우는 대학 졸업 후 일본 J2리그로

아소쿠마모토를 통해 프로에 데뷔했으나, 햄스트링과 무릎 인대 부상으로 2시간간 9경기 출장에 그쳤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임진우는 "잘하고자하는 의지와 의욕만 앞세워 보니 부상을 얻어 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다"며 "나에게 기회를 준 광주에 감사하다. 항상 자신감과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팀 승리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컬테스트를 마친 임진우는 곧바로 팀에 합류해 오는 7일에 있을 광양전지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조상기 기자 godqhr0065@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전북, 이시현 등 신인 5명 영입

프로축구 K리그1 '강' 전북 현대가 5명의 신인 선수를 영입해 2019시즌을 준비한다.
전북은 6일 미드필더 이시현(21), 김재석(18), 공격수 이성운(19), 골키퍼 김정훈(18), 수비수 이은식(20)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시현은 전북 유스 팀 영생고 출신으로 중앙대를 거쳤고, 이성운, 김정훈, 이은식은 영생고에서 프로로 직행했다. 수원공고 출신인 김재석은 자유계약으로 전북에 합류했다.
이들 중 김정훈은 전북의 첫 번째 준프

로 선수(소속 유스팀 만 17~18세 선수와 계약하는 제도)이며, 이은식은 최조로 전북 15세 이하(U-15), 18세 이하(U-18) 팀을 모두 거쳐 프로에 입단했다.
이시현은 "전북은 신인의 무덤이 아닌 대표팀의 등용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재성, 김민재 선배처럼 인정받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